

컴트롤러

얼마 안 있으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결산기를 맞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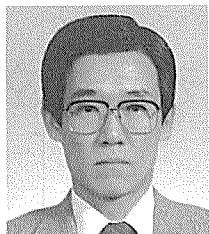
해가 바뀌면 시무식과 함께 경리부서는 지난 1년간 살림살이의 뒷처리인 장부마감·회계조정·결산보고 등은 물론 신년도 사업계획 등 산더미같은 업무속에 파묻히게 된다.

바쁜 업무 중에 타부서에서 예산이나 자금부문에 문의가 오면 『결산중이라서 시간이 없다』거나 『결산이나 끝내 놓고 검토합시다』라고 말하는 때가 있다.

그리고 경리업무의 電算化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힘들다고 말하며 책상 가득히 장부와 전표를 쌓아놓고 해가 바뀔줄도 모르고 엉거주춤 1·4분기를 다 보내는 경우가 있다.

요즈음 사무자동화라는 말과 함께 업무전산화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많아졌다. 경리업무전산화 덕택에 만성적인 야근에서 탈피하게됐고 매일매일 어느 싯점에서나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手作業用경리장부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기업들이 늘고있다.

기업의 경리업무는 축구경기에서 수문장과같은 것이고 항공기를 예로 들면 꼬리날개에 비유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업무가 다섯손가락으로 움직이는 주판에 의존하여 처리됐다. 이것이 최근에는 전기의 陰陽,



이승대

한국사무전산 대표이사

즉 二進法에 의한 전자계산기로 손쉽게 처리된다.

오늘날 관리인·경영인을 英語로 컨트롤러(COMPTROLLER)라고 부른다고 한다. 전자계산기(Computer)를 이용하여 기획·예산·통계·분석 감사업무 등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Control)하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기업경영인이 자기기업의 자재구매·영업·생산업무 등을 총괄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물론 이들 업무를 컴퓨터를 활용하여 관리하고 경영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컴퓨터는 이제 경리업무를 전산화, 야근없는 경리부를 만들어 주었을뿐만 아니라 경영자에게도 이를 이용하지않으면 경영이 힘들게끔 상황을 바꿔놓고 말았다.